



李光榮  
(과학문화진흥회 부회장)

대한 바른 이해없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예산낭비라 비판받던 화성 탐사계획이 1996년 8월 NASA(미항공우주국)가 '화성운석에서 생명체가 남긴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화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빌 클린턴 정부로부터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과학 대중화는 국가경제를 강화해준다. 국가경제가 발전해 가려면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정에서 일

들도 주변학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층간의 대화의 단절은 사회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 민주사회에서 정치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들은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과학 대중화는 과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바탕을 둔 대중의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절차의 효율을 강화한다.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의 대부분은 과

# 과학 대중화와 경제사회 발전

과학 대중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온지 오래다. 그러나 과학 대중화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학 대중화는 단순히 과학지식을 널리 보급해서 국민을 과학의 무지(science illiteracy)로부터 일깨우는 일이 아니다.

과학 대중화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마디로 과학 대중화 없이는 과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갈 수 없다.

과학 대중화는 과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가능케 한다. 많은 연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납세자인 국민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납세자인 국민의 과학에

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신제품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과학 대중화는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많을수록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의사를 관철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과학대중이해증진위원회(COPUS)는 '개인적인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제반 상황에서 과학적 지식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과학 대중화는 사회단절현상을 극복케 한다. 영국의 석학 C. P. 스노우(Snow)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두개의 문화권에 살고 있다.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은 물론 같은 분야의 길을 가고 있는 학자

학과 관련이 있다. 반과학운동은 과학의 무지에서 온다. 과학이 일 반대중으로부터 유리될 때 소외감을 가져오고 모욕감마저 갖게 된다. 이처럼 사회에 대한 위협한 단절현상은 과학의 대중이해 증진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과학 대중화는 문화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 '프랑켄슈타인'을 비롯한 공상과학 장르 등이 그 예이다. 우주정거장의 허블망원경에서 보내온 영상들이 소장가치가 있는 예술품으로 화랑에 전시되기까지 한다.

과학 대중화는 국민을 과학의 무지로부터 일깨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생활 속에 과학정신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과학 대중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㉑